

## 【 2 】국가지방지원도 제56호선 (용암-상수간)확 · 포장공사 건의안

발의년월일 : 1999. 6. 29

제 의 자 : 박영원 의원의1인

### □ 제안이유

- 현재 국가지방지원도 제56호선중 은현면 용암리와 - 남면 상수리 구간은 본래 지방도 제316호선 이었으나 96년 7월 19일 국가지방지원도로 승격된바 있음.
- 국가지방지원도로 승격되기전 본 도로는 190억원을 투자 확 · 포장공사 계획이 확정 되었으나 국가지방지원도로 승격되어 본 구간만 확 · 포장 공사가 지연되어 병목현상을 초래 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용암리와 상수리간의 도로 확 · 포장공사를 조속히 시행하여 줄 것을 건의함.

### □ 주요골자

- 용암리와 상수리간의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사업추진경위와 현지여건의 검토
- 금년중 용암-상수리간의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예산지원.
- 사업착공 단계에서 도로 등급의 변경으로 장기간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불합리한 행정행태 개선.
- 수신처 : 건설교통부 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경기도지사

## 국가지원지방도 56호선(용암-상수간) 확·포장 건의

국가지원지방도 제56호선 중 주요 경과지인 은현면 용암리~남면 상수리 구간은 본래 지방도 제316호선(문산~가산)이었으나 '96. 7. 19일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된 바 있습니다.

본 도로는 한수이북지방의 중심부를 동서로 횡단하는 기간도로로서 일찌기 도로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경기도는 '93년~'99년까지 총연장 6.15km를 17.5m로 확·포장하기 위해 190억원을 투자키로 사업계획을 확정하였고

'93. 8. 13일 실시설계를 완료한데 이어 '94년~'96년까지 용지보상을 실시하여 보상율이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97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국지도 승격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도 316호선 중 국지도에서 제외된 지방도 323호선(파주시 적성면 ~ 양주군 남면 상수리) 구간 7.24km는 경기도가 97. 3월부터 292억원을 투자하여 4차선 확·포장사업을 착수하고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어 국지도 구간만 병목구간으로 남는 기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이지역은 교통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도로여건은 개선되지 않아 교통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용지보상후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것 외에도 도로편입 예정지 인근은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대한 정부의 대책은 마련된 것이 없고 다만 지난해 경기도가 보완설계에 착수한 것이 고작인 실정입니다.

양주군의회는 증폭되는 군민의 불편·불만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

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사항을 건의하며 관계당국이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첫째, 건설교통부는 국지도 제56호선 중 용암-상수간에 대한 그간의 사업추진경위와 현지여건 그리고 본 도로 확충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설교통부는 경기도가 추진중인 설계보완을 독려하여 조속히 마무리하고 금년 중으로 본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설교통부는 본 구간과 같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단계에서 도로의 등급이 변경되었다하여 장기간 시행을 지연함으로써 주민들이 격게되는 불편·부담을 주민의 입장에서 인식하고 이같은 불합리한 행정행태가 바로 개선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